

ORIGINAL ARTICLE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20;59(1):72-85
Print ISSN 1015-4817
Online ISSN 2289-0963
www.jknpa.org

국내 언론에 나타난 정신질환 관련 이슈의 언어 네트워크 분석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요 5대 언론사를 중심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 연구기획과,¹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²
박선주¹ · 신나리¹ · 김승혜¹ · 박수빈¹ · 김철웅²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Issues Related to Mental Illness in Korea Media : Focusing on the Five Major Media from 2016 to 2018

Sun Joo Park, MA¹, Na Ri Shin, MA¹, Seung Hye Kim, MA¹,
Su Bin Park, MD, PhD¹, and Chul Eung Kim, MD, PhD²

¹Department of Research Planning, Mental Health Research Institute,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Seoul, Korea

²Mental Health Research Institute,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Seoul, Korea

Objectives This study examined the trend of press reports on mental illness in Korea to help set a desirable direction for future press reports on the subject.

Methods This study adopted the method of semantic network analysis to analyze the trend of press reporting on mental illness in Korea. The study analyzed 1253 newspaper articles from 2016 to 2018 published by the five major Korean press : The Kyunghyang Shinmun, The Dong-A Ilbo, The Chosun Ilbo, The JoongAng Ilbo, and The Hankyoreh.

Results The number of articles on mental illness is on the decline year by year, with 465 articles in 2016, 406 in 2017, and 382 in 2018. According to keyword analysis, the order of the words of the highest frequency is as follows : treatment (659), patients (486), mental health (466), incidents (436), and children and adolescents (413). In terms of the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and Betweenness Centrality, the following words are commonly ranked within the top 10 on the lists: treatment, children and adolescents, patient, mental health, depressive disorder, family, suicide, and counselling.

Conclusion The pres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mental illness, and its reporting should guarantee accuracy, objectivity, fairness, diversity,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addition, reports on mental illness need to provide balanced health information, considering the readers, from basic information on mental illness to detailed treatment methods. Establishing reporting guidelines for mental illness would help reduce harm and prejudice related to mental illness and increase access to treatment.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20;59(1):72-85

KEY WORDS Mental illness · Semantic network analysis · Newspaper articles.

Received October 10, 2019
Revised November 18, 2019
Accepted November 18, 2019

Address for correspondence
Chul Eung Kim, MD, PhD
Mental Health Research Institute,
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127 Yongmasan-ro, Gwangjin-gu,
Seoul 04933, Korea
Tel +82-2-2204-0103
Fax +82-2-2204-0393
E-mail chulkim320@gmail.com

서 론

급변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양한 정신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에 한 번 이상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¹⁾ 이렇듯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고, 국내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22.2%로 OECD 국가 등 선진국의 절반도 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¹⁾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까닭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정신질환과 정신과 치료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그 주된 이유라 할 수 있다.^{2,3)}

언론은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 중 하나로 사회 전반

의 정보나 뉴스를 전달함으로써 대다수 사람들의 현실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정신질환을 가진 주변인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해 이해하게 될 수도 있지만, 정신질환자를 직접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다수 사람들은 언론의 영향을 받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가진다.⁴⁻⁶⁾

그런데 최근 정신건강 관련 기사들을 보면, 정신질환 증상이 있는 사람들의 범죄 사례가 강조되어 보도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낙인이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2016년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사건의 경우 여성 혐오 범죄나 또는 정신질환자 범죄나 하는 논란 속에서 경찰이 이 사건을 ‘정신질환자(조현병)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결론 내리고 이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⁷⁾되면서 정신질환자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기도 했다. 2017년 인천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한 청소년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생을 유괴하여 살해한 사건 역시 ‘8세녀 살해범, 조현병 확인... 동창, 초등생 때부터 동물 죽여서 해부’ 등⁸⁾의 자극적인 내용으로 대중들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기도 했다.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중매체의 보도가 공정하고 정확해야 함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언급되어졌으며 학문적 필요성도 제기되었다.⁸⁾ 하지만 정신질환의 언론보도 현황에 대한 연구⁹⁻¹¹⁾는 충분하지 않으며 주로 ‘자살’, ‘우울’, ‘공황장애’ 등 특정 건강 이슈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 전반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3개년인 2016~2018년까지의 주요 5대 신문사 기사에서 정신질환이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별히 정신질환에 대한 국내 언론보도의 현황을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살펴봄으로써 그간의 관련 연구가 질적·주관적 해석의 영역에서만 진행되어 왔던 것을 양적·객관적 분석의 범주로 확장시켜 주관적 요소의 개입을 확률적으로 최소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향후 바람직한 언론보도 방향을 정립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방 법

분석 대상

본 연구는 정신질환에 대한 언론보도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네이버 뉴스스탠드, 조선일보 아카이브, 중앙일보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정신질환 관련 기사를 검색하였다. 분석 대상 기사는 가장 대중적이면서 검증된 기사만 활용하기 위해 신문사의 성향과 전국 일간지 인증 부수를 기준으로 주요 5대

Table 1. Number of articles related to mental illness

The press	Search word	Collected articles	Analyzed articles
Kyunghyang Shinmun			278
	Mental illness	138	
	Mental Disorders	350	
	Psychopathy	22	
	Sub total	510	
Dong-A Ilbo			330
	Mental illness	123	
	Mental Disorders	348	
	Psychopathy	30	
	Sub total	501	
Chosun Ilbo			155
	Mental illness	117	
	Mental Disorders	45	
	Psychopathy	150	
	Sub total	312	
Joongang Ilbo			266
	Mental illness	414	
	Mental Disorders	465	
	Psychopathy	48	
	Sub total	927	
Hankyoreh			224
	Mental illness	128	
	Mental Disorders	285	
	Psychopathy	19	
	Sub total	432	
Total		2682	1253

언론사로 불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의 지면 기사로 한정하였다.¹²⁾

본 연구는 기사의 본문을 분석 자료로 설정하였다. 기사 제목은 기사의 내용과 핵심 주제를 집약적으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분석 자료로 선정되는 경우^{13,14)}가 있으나, 제목만으로는 기사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 기간은 2016~2018년까지 최근 3개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정신질환’ 관련 기사를 수집하기 위해 ‘정신질환’과 더불어 ‘정신장애’와 ‘정신병’을 키워드로 하여 함께 검색하였고, 총 2682건의 기사를 확인하였다. 이중에 중복된 기사를 제외하고, 기사 제목과 본문 등을 검토하여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기사들(예컨대, 광고 글, 국외 정신질환 관련 기사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언론보도 실태 분석에 적합한 총 1253건의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표 1).

본 연구는 분석 대상이 주요 5대 언론사의 기사로 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시험심판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에서 심의면제(IRB 승인번호 116271-2018-42)를 받았다.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정신질환에 대한 언론보도 실태 분석을 위해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네이버 뉴스스탠드, 조선일보 아카이브, 중앙일보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분석 대상 기사를 선정하고 1253건에 대한 기사 제목, 발행 일자, 기사 본문을 추출하였다.

둘째, 키워드 추출 및 정제 작업을 수행하였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형태소 단위로 분석이 이루어지므로 약어, 띄어쓰기 등을 교정하였고, 유사어, 제외어, 지령어 사용자 사전⁹⁾을 만들어 정제하였으며(부록 1),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 중 일반적인 개념을 나타내어 의미 있는 단어가 되지 못하는 경우 제거하였다.¹⁵⁾ 이를 통해 동일한 의미를 갖는 단어가 다른 네트워크 노드로 연결되지 않도록 통제하였다. 예를 들어 ‘정신보건’은 ‘정신건강’으로, ‘정신분열증’은 ‘조현병’으로 수정하였다. 또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 하나의 의미로 사용되는 ‘공황 장애’, ‘여성 혐오’ 등 복합명사는 교정 중 의미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분리하지 않고 ‘공황장애’, ‘여성혐오’로 수정하였다.

셋째, 정제된 단어 중 상위 0.5%에 해당되는 단어 101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NetMiner에 연구자 간 합의된 사용자 사전을 적용한 결과, 18222개의 단어가 출현빈도와 함께 확인되었다. 이때 출현빈도란 단어가 등장한 기사 건수로, ‘자살’이 244회 나왔다면 1253건의 기사 중 244건의 기사에 출현했다는 의미이다. 이는 하나의 기사에 특정 단어의 빈도가 높을 경우 연구 결과에 편향성이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일정 빈도 이상의 출현 단어만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어를 중심으로 분석할 때 주요 현상을 보다 명확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⁵⁾ 분석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단어 개수를 결정함에 있어 학계 내 합의된 기준이 없어,¹⁶⁾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기사에 등장하는 빈도가 낮은 경우부터 검토하면서 전체 단어의 상위 0.5% 내외로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 단어들의 출현빈도는 1~659회로 다양하지만, 출현빈도 122건 이하가 99.4%, 127건 이하가 99.5%였다. 따라서 122건 이하로 출현한 단어는 제외하고 101개의 단어를 선정하였다.

넷째, NetMiner 4.4(Cyram, Seoul, Korea)를 활용하여 앞서 선정된 단어 간 동시출현 빈도를 계산하고 이를 가중치 값으로 하는 단어×단어 매트릭스를 만든 후, 키워드(node)

101개 간 동시출현(link) 총 1643회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생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단어 간 동시출현은 개별 기사의 문장 내에서 두 개의 단어 간 거리가 3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 즉 단어 간 거리의 최솟값은 2이며, 이는 두 개의 단어가 나란히 등장하는 경우를 동시출현으로 설정한 것이다. 또한 단어 간 거리가 3 이하인 것은 연이어 등장하는 세 개의 단어 간에 순서를 고려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세 가지 단어 쌍을 동시출현 관계로 설정한 것이다.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단어 간 거리가 커지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단어와도 동시출현 관계로 보게 되는데, 이는 현상을 파악함에 있어 명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¹⁷⁾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내 키워드의 중심성 및 핵심 키워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중심성(centrality)을 분석하였다. 중심성 분석은 다른 개념들과 강한 연결 관계(link)를 가지는 키워드(node)를 산술적으로 도출하는 것으로, 상대적 값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중심성이 높은 단어를 핵심 단어로 간주한다.¹⁸⁾ 본 연구에서는 단어 간 인접 관계와 출현 빈도 등을 분석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이렇게 3개의 중심성을 분석하였다.¹⁸⁾ 각 중심성 지수에 대한 설명은 표 2에 명시하였다.

한편, 정신질환 관련 기사의 하위 주제 그룹을 확인하기 위해 2016~2018년 기사의 언어 네트워크를 군집화(clustering)하였다. 이는 특정 단어의 출현빈도를 알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단어들이 특정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는지 단어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적 분석을 하는 것이다.¹⁹⁾ 이를 위해 NetMiner에서 위계적(hierarchical) 군집 분석을 하였다. 위계적 군집 분석은 유사성의 수준에 따른 군집을 보여주는 덴드로그램(dendrogram)으로 결과가 나타난다. 소시오그램(sociogram)을 이용하여 같은 군집에 모인 단어들이 동시출현한 기사와 단어 간 관계를 확인하고 군집을 명명하였다.

결 과

정신질환 관련 기사의 일반적 특징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요 5대 언론사에서 보도된 1253건의 연도별 기사 건수는 표 3과 같다.

주제어 분석

2016~2018년 핵심 단어 분석

기사에 사용된 단어들의 출현빈도,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을 기준으로 단어 순위를 파악하여 기준별 상

⁹⁾ 사용자 사전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ckim320@korea.kr로 연락바람

위 20개 단어를 표 4에 나열하였다. 출현빈도는 ‘치료(659건)’, ‘환자(486건)’, ‘정신건강(466건)’, ‘사건(436건)’, ‘아동청소년(413건)’순으로 높았다. 세 가지 중심성에서는 상위 10위

내에 공통적으로 ‘치료’, ‘아동청소년’, ‘환자’, ‘정신건강’, ‘우울장애’, ‘가족’, ‘자살’, ‘상담’이 나타났다(부록 2). 연결중심성을 기준으로 상위 30개 단어 간 네트워크를 그

Table 2. Concept of centrality index

Index	Concept
Degree centrality	Degree centrality is the degree of co-occurrence with other words, which assesses activity. High degree centrality means that the node is at the heart of the network and plays a key role in the network.
Closeness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is an indicator of how close a node is to other nodes in the network. Shorter distances from other nodes mean better accessibility and delivery.
Betweenness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is an indicator of how well a node is in the network connecting to other nodes. High Betweenness Centrality is a moderator, gate keeper, and information filter between words that are not connected to each other.

Table 3. Number of articles related to mental illness by year

The press	Year			Total
	2016	2017	2018	
Kyunghyang Shinmun	79	96	103	278
Dong-A Ilbo	110	122	98	330
Chosun Ilbo	59	54	42	155
Joongang Ilbo	127	80	59	266
Hankyoreh	90	54	80	224
Total	465 (37.1%)	406 (32.4%)	382 (30.5%)	1253 (100.0%)

Table 4. Top twenty affiliations : frequency, DC, CC, and BC

Ranking	Frequency	DC	CC	BC
1	Treatment (659)	Treatment (0.860)	Treatment (0.877)	Children and adolescents (0.064)
2	Patient (486)	Children and adolescents (0.840)	Children and adolescents (0.862)	Treatment (0.063)
3	Mental health (466)	Patient (0.820)	Patient (0.847)	Patient (0.048)
4	Incident (436)	Mental health (0.660)	Mental health (0.746)	Depressive disorder (0.028)
5	Children and adolescents (413)	Depressive disorder (0.630)	Depressive disorder (0.730)	Mental health (0.028)
6	Family (395)	Family (0.600)	Family (0.714)	Family (0.026)
7	Depressive disorder (363)	Suicide (0.590)	Suicide (0.709)	Suicide (0.022)
8	Diagnose (346)	Management (0.540)	Management (0.685)	Counseling (0.015)
9	Research (323)	Counseling (0.530)	Counseling (0.680)	Stress (0.015)
10	Management (322)	Senior citizen (0.490)	Senior citizen (0.662)	Parents (0.014)
11	Danger (322)	Stress (0.480)	Stress (0.658)	Incident (0.014)
12	Government (296)	Protection (0.470)	Protection (0.654)	Management (0.013)
13	Police (291)	Parents (0.470)	Parents (0.654)	Senior citizen(0.013)
14	Stress (288)	Incident (0.470)	Incident (0.654)	Support (0.012)
15	Support (277)	Support (0.470)	Support (0.654)	Diagnose (0.011)
16	Body (275)	Healthcare (0.460)	Healthcare (0.649)	Hospitalization (0.010)
17	Hospitalization (272)	Government (0.460)	Government (0.649)	Healthcare (0.010)
18	Counseling (270)	Diagnose (0.460)	Diagnose (0.649)	The mentally ill (0.009)
19	Help (266)	Hospitalization (0.450)	Hospitalization (0.645)	Prevention (0.009)
20	Murder (266)	The mentally ill (0.450)	The mentally ill (0.645)	Research (0.009)

DC : Degree centrality, CC : Closeness centrality, BC : Betweenness centrality

림 1에 제시하였다.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활동성을 보이는 단어들은 ‘치료’, ‘아동청소년’, ‘환자’, ‘정신건강’, ‘우울장애’, ‘가족’, ‘자살’, ‘관리’, ‘상담’ 등이다. 이 단어들은 연결중심성이 높아서 노드 크기가 크고, 다른 단어와 동시출현빈도가 높아 링크가 굵다(부록 3).

연도별 핵심 단어 비교

2016, 2017, 2018년에서 추출된 단어 중 연결중심성이 높은 상위 20개 핵심 단어들을 순위대로 나열하여 표 5로 제시하였다.

2016~2018년 기사의 하위 주제 그룹

단어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유사성의 수준에 따른 군집을 보여주는 위계적 군집 분석을 하였다. 군집화 과정에서 집단 내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는 방식인 Ward's Method

를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덴드로그램으로 군집화되는 과정을 확인하였으며, 표 6에 10개 하위 주제 그룹을 제시하고 각 그룹의 단어를 출현빈도순으로 나열하였다(부록 4). 군집별 소시오그램과 함께 기사 본문에서 이들 단어가 사용된 맥락을 확인하여 군집명을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두 번째 군집(‘정신장애인 인권’)은 소시오그램에서 가장 크기가 크고 링크가 굵게 상호 연결되어 이들이 빈번하게 동시출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들, 즉 ‘강제’, ‘입원’, ‘정신질환자’의 상호 연결성을 반영해 명명한 것이다. 연구 자료인 기사 본문을 살펴보면 이러한 명명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다수의 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데, “경찰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범죄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를 추진하기로 했다(경향신문, 2016-05-23).”, “정신건강복지법(옛 정신보건법)은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22년 만에 개정됐다. 재산 다름·가족 간 갈등으로 정상인이나 경증 환자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입원당하는 억울함을 줄이자는 취지다(중앙일보, 2017-05-30).” 등 핵심 단어가 동시출현하는 문구를 참고하여 명명하였다.

고 찰

최근 정신질환에 대한 언론보도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진행된 연구의 수는 적은 편이며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적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지난 3년간(2016~2018년) 정신질환에 대한 주요 5대 신문기사의 보도 형태를 네트워크 분석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3년간 주요 5대 신문사의 정신질환 관련 기사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16년 465건, ’17년 406건, ’18년 382건)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비교적 짧은 기간의 추이로 기사량에 대한 보다 유의미한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석 기간의 확장이 필요하다.

둘째, 주제어 분석과 관련해서 출현빈도는 치료(659건),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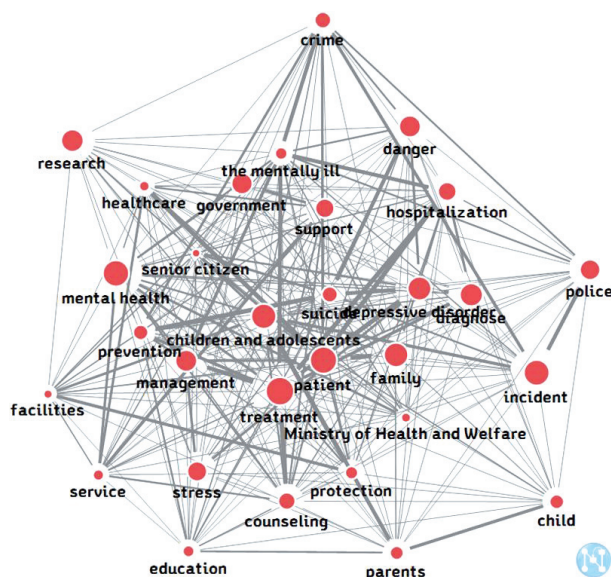


Fig. 1. Sociogram of the top 30 keywords based on degree centrality.

Table 5. Top 20 keywords based on DC by year

Year	Words
2016	Treatment>children and adolescents, patient>incident>mental health>crime>suicide>police>depressive disorder>stress, the mentally ill>murder>family>management, counseling>misogyny, dementia, danger, hospitalization>research, support
2017	Patient>children and adolescents, treatment>mental health>depressive disorder>suicide>incident>dementia>hospitalization, murder>diagnose>family>support>management>research, government, counseling>schizophrenia, police, school
2018	Children and adolescents>treatment>patient>incident>mental health, dementia>support, healthcare>depressive disorder>research>hospitalization>family>senior citizen, government, welfare, facilities>murder, suicide>victim, police, office

DC : Degree centrality

Table 6. Subtopic group of articles related to mental illness

Group name	Words
G1 Depression, anxiety, and suicide (n=7)	Anxiety, counseling, stress, depression, depressive disorder, suicide, office
G2 Trauma (n=12)	Worry, pain, record, memory, university, death, hurt, sound, name, preparation, shock, appeal
G3 Human rights of the mentally ill (n=5)	Compulsion, human rights, hospitalization, the mentally ill, schizophrenia
G4 Addiction (n=9)	Reaction, taking, adult, exacerbation, drug, cognition, normal, addiction, disease
G5 Mental Health and Welfare Law (n=7)	Regulation, organization, court, application, demand, committee, discrimination
G6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n=8)	Senior citizen, visi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surance, burden, healthcare, specialist, consultation
G7 Mental illnes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n=9)	Family, management, children and adolescents, prevention, danger, mental health, diagnose, treatment, patient
G8 Mental health policy and services (n=15)	Reinforcement, institution, provision, voice, protection, welfare, service, facilities, safety, government, policy, system, support, assessment, expansion
G9 Incident of the mentally ill (n=10)	Police, crime, offense, anger, incident, murder, investigation, violence, harm, victim
G10 Mental health of children and adolescents (n=19)	Domesticity, attention, education, ability, help, parents, lack, body, mother, role, research, workout, awareness, child, concentration, friend, program, school, environment

자(486건), 정신건강(466건), 사건(436건), 아동청소년(413건) 가족(395건), 우울장애(363건), 진단(324건), 연구(323건), 관리(322건), 위협(322건)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상당한 양의 기사가 정신질환자 사건/관리/위협(1080건)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예방/연구(323건)에 관한 기사는 이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생애주기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질환과 관련해서는 우울장애에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책임이 가족에게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족 또한 그 출현빈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모두에서 ‘치료’, ‘아동청소년’, ‘환자’, ‘정신건강’, ‘우울장애’, ‘가족’, ‘자살’, ‘상담’이 상위 10위 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출현빈도가 높았던 주제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이다. 각 연도별 단어와 기사 본문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2016년은 ‘범죄’, ‘스트레스’, ‘정신질환자’, ‘여성혐오’, ‘위협’이 다른 연도와 달리 상위 20위에 포함되어 있었다. 2016년에 일어난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을 ‘정신질환자의 병적 증상에 의한 사건’으로 보는 시각과 ‘여성혐오 범죄’로 보는 시각으로 여론이 대립되면서 관련 보도가 많았다. 또한 이러한 사건의 여파로 정신질환자는 ‘위협’하다는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신질환자의 일반인보다 낮은 범죄 가능성, 조현병에 대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보도도 늘었다. 이러한 기사들

에서 ‘정신질환’, ‘범죄’, ‘여성 혐오’, ‘위협’이 연결중심성이 높은 핵심 단어가 된 것으로 파악된다. ‘스트레스’는 다양한 정신질환의 발병과 관련성이 높은 ‘스트레스’,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에서의 ‘스트레스’, 직장 내 ‘스트레스’, 자녀에게 폭력을 휘두르게 하는 부모의 ‘스트레스’, 정신질환자 살인사건 등 사회 위험성으로의 ‘스트레스’ 등 다양한 주제의 기사에서 ‘스트레스’가 핵심 단어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17년에만 상위 20위에 ‘진단’, ‘조현병’, ‘학교’가 포함되었는데, ‘진단’이라는 단어는 다음 3가지 주제의 기사에서 주로 등장하였다. 1) 2017년 5월 30일부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정신과 병원에 강제입원 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교차 ‘진단’ 시행과 관련된 기사, 2) ‘20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우울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 조현병 등 다양한 정신질환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방법을 보도한 기사, 3) 당해 발생한 ‘인천 초등학교 살인사건’과 ‘이영학 여중생 살인사건’에서 피의자의 정신과적 ‘진단’이 무엇인가에 관한 기사 등에서 ‘진단’이 연결중심성이 높은 단어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조현병’이라는 단어는 2가지 정도의 맥락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었는데, 1) 2016년 발생했던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2017년 발생한 ‘인천 초등학교 살인사건’ 등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정신질환자에 의한 살인사건의 피의자에게 조현병 치료력(혹은 조현병으로 진단받

있었던 이력)이 있다는 점, 2)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에 관한 기사, 특별히 조현병 환자의 치료와 인권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보도 내용이 많았다. ‘학교’의 경우는 1)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애에서 ‘학교’ 적응은 어땠는가 하는 내용, 2)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과 관련된 내용, 3) ‘학교’라는 특수한 장(場)에서 일어나는 정신건강 문제-학교 폭력, 조롱 문화, 학업 스트레스 등의 맥락에서 연결중심성이 높은 단어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 초등학교 살인사건’과 ‘이영학 여중생 살인사건’의 보도량이 많은 상황에서 피의자의 과거 ‘학교’ 생활, 범행 당시 ‘학교’ 밖 청소년이었던 상황, ‘여중생 살인사건’ 피의자가 딸의 초등‘학교’ 친구를 유인하도록 한 내용들이 포함되면서 정신질환 관련 보도에 사용된 다양한 단어들 중에서 ‘학교’의 연결중심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2018년에는 ‘노인’, ‘의료’, ‘복지’, ‘시설’, ‘피해자’, ‘직장’이 다른 연도와 달리 상위 20위에 포함되었다. 현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면서 치매의 검진, 치료비 부담 경감,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된 보도가 증가하면서 ‘노인’이라는 단어의 연결중심성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노인’과 장애인에게 병원 ‘시설’ 대신 지역 사회 돌봄을 확산하는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이와 함께 보건의료·복지 체계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다수 게재되면서 2018년 언론보도에서 ‘노인’, ‘의료’, ‘복지’, ‘시설’ 등 단어의 연결중심성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에 일어난 여러 건의 정신질환자 추정 피의자에 의한 사건들(강서구 피씨방 살인사건, 여중생 살인사건, 쪽방여관 방화사건, 부산 이웃 흥기 살해사건, 방배동 초등학교 인질 사건 등)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피의자를 감형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의 동향이 자주 보도되면서 ‘피해자’라는 언급이 많았다. 2018년 1월 이후로 국내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미투운동 보도에서의 ‘피해자’, 재난 ‘피해자’(세월호, 지진, 고시원 화재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촉구하는 보도,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가 참여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보도에서의 ‘피해자’, 직장 갑질의 ‘피해자’ 등 다양한 보도에서 ‘피해자’라는 단어가 나타나면서 연결중심성이 높은 핵심 단어로 위치하게 되었다.

셋째, 단어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단어의 패턴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하위 주제 그룹을 나누어 보았는데, 자살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알려진 우울·불안이 하나의 하위 주제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최근 사회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하위 주제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었다. ‘중독’ 질환 역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었으며, 법 개정과 더불어 ‘정신건강복지법’ 그리고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 관련 내용이 각기 다른 하위 주제를 이루고 있었다. 조현병과 같은 중증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자 사건’과 더불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다룬 내용도 주제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다. 한편 생애주기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노인·아동청소년’ 대상에게도 관심이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신질환 관련 기사 수는 소폭 감소(‘16년 465건, ‘17년 406건, ‘18년 382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외에서 유방암의 경우, 뉴스 보도량이 증가됨에 따라 대중의 관심이 늘어나고 그와 함께 연구비 증가와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면서 결과적으로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아진 사례가 있다.²⁰⁾ 언론의 정신질환에 대한 보다 높은 관심이 요구된다.

둘째, 보도된 기사의 상당수가 예방/연구(323건)보다는 사건/관리/위험(1080건) 중심의 부정적인 기사가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신질환이 사건, 사고, 범죄와 연결된 기사가 많았다는 Lee 등²¹⁾의 선행 연구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으며, 근 20년간 이러한 추세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또한 대중의 사회 주요 주제에 대한 인식은 언론매체의 기사에 영향을 받는다.²²⁾ 따라서 정신질환 여부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언론의 범죄보도 경향은 정신질환자들을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며 편견과 차별에 노출시킬 수 있다. 언론은 정신질환 보도에 있어서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 사회적 책임성에 유의하여 기사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층에 대한 높은 관심(출현빈도 및 3개의 중심성에서 상위 10위 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보도된 기사 대부분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우울·불안장애, 틱장애, 뇌전증 등 질병에 대한 기초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었다. 영국기자협회가 제정한 정신질환, 정신장애 및 자살에 대한 보도 가이드라인(responsible reporting on mental health, mental illness & death by suicide : a practical guide for journalists by the Union of Journalists)²³⁾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에 대한 보도 시 정신질환에 대한 지원, 치료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있으며, 도움을 받으려면 어디에 접촉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신질환 보도 시 정신질환에 대한 기초 정보부터 구체적인 치료 방법에 이르기까지 건강정보를 균형 있게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질환 가운데 우울장애에 대한 관심(출현빈도 및 3개의 중심성에서 상위 10위 內)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20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²⁴⁾ 결과 평생 유병률을 살펴보면, 알코올사용장애 12.1%, 니코틴사용장애 6.0%, 불안장애 9.3%가 우울장애를 포함하는 기분장애 5.3%보다 유병률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언론이 수용자를 고려하여 우울장애 뿐 아니라 유병률이 높은 질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도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권고 기준의 제정은 언론의 바람직한 정신질환 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발표되고 언론보도 방식도 변화하면서 자살 관련 행동도 감소 추세(‘11년과 ‘16년의 평생 유병률을 비교하면 △자살 생각 15.6%→15.4%, △자살 계획 3.7%→3.0% △자살 시도 3.2%→2.4%)²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정신질환 관련 보도 권고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제시된 것이 없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신장애인 편견 및 차별을 최소화하는 신문기사 보도 매뉴얼’을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내용이 한정적이라 적용이 쉽지 않다. 영국, 뉴질랜드 등^{25,26)} 선진국의 경우 언론인 조합(National Union of Journalists)과 같은 대표적인 언론단체 등에서 정신질환, 정신장애 그리고 자살에 대한 언론보도 권고 기준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기준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살뿐 아니라 정신질환, 정신건강에 대한 보다 명확한 권고 기준이 제정된다면 언론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폐해와 편견을 낮추고 치료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주요 5대 신문사의 3개년 기사만을 분석하였기에 추이를 파악하거나 좀 더 포괄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분석 기간을 확장하거나 분석한 신문사 외 다른 신문사에 게재된 기사 또는 TV 방송, 라디오 등 보다 다양한 매체의 기사들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겠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정신질환 관련 언론 분석 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자의 인지적 한계나 주관적 전문성의 격차에서 발생하는 범주화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확률적 추론에 근거하여 언론의 정신질환에 대한 기사 분석을 최초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기점으로 향후 정신질환에 대한 기사 분석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궁극적으로 언론이 정신질환에 대한 바람직한 보도 방향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결론

본 연구는 지난 3년간 주요 5대 언론사에 보도된 정신질환 관련 기사 1253건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신질환 관련 기사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보도된 기사의 상당수가 사건/관리/위험 중심의 부정적인 기사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언론은 아동·청소년 대상과 우울장애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현실대로 볼 때 언론의 정신질환에 대한 보다 높은 관심과 더불어 기사 작성 시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 사회적 책임성에 보다 유의가 필요해 보인다. 아동·청소년 대상의 기사 대부분이 질병에 대한 기초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정신질환에 대한 기초 정보뿐 아니라 구체적인 치료 방법 등도 균형 있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수용자를 고려하여 우울장애와 더불어 유병률이 높은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보도 자세도 요구된다. 끝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보도 권고 기준의 제정은 언론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폐해와 편견을 낮추고 치료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중심 단어 : 정신질환 ·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 · 신문기사.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HM14C2164).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REFERENCES

- 1)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survey of mental disorders in Korea. Sejong: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17.
- 2) Gong SJ.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Lay Person toward the Mentally Ill.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1997;6: 265-277.
- 3) Paek HJ, Cho HJ, Kim JH. Content analysis of news coverage on stigma and attribution regarding mental illnes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2017;61:7-43.
- 4) Goulden R, Corker E, Evans-Lacko S, Rose D, Thornicroft G, Henderson C. Newspaper coverage of mental illness in the UK, 1992-2008. BMC Public Health 2011;11:796-804.
- 5) Rhydderch D, Krooupa AM, Shefer G, Goulden R, Williams P, Thornicroft A, et al. Changes in newspaper coverage of mental illness from 2008 to 2014 in England. Acta Psychiatr Scand 2016;134 Suppl 446:45-52.
- 6) Hwang AL, Na EY. Content analysis of news coverage with regard to mental health: focusing on news frame and ton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018;38:290-322.
- 7) news.khan.co.kr [homepage on the Internet]. Gangnam Station murder case, 30 years imprisonment. Seoul: Kyunghyang Shinmun [updated 2017 Apr 13;cited 2019 Apr 2]. Available fr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131050001&code=940301.
- 8) donga.com [homepage on the Internet]. Killer of 8-year-old is identi-

- fi... Alumni "killing and dissecting animals since elementary school age". Seoul: dongA.com [updated 2017 Apr 3; cited 2019 Apr 2]. Available from: www.donga.com/news/article/all/20170403/83660985/2.
- 9)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Solidarity in Korea(DDASK). The Survey of the Mitigation and Consideration for the Disorder of Mental Disabilities. Seoul: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2012.
- 10) Paek HJ, Cho HJ, Kim JH. Content analysis of news coverage on stigma and attribution regarding mental illnes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2017;61:7-43.
- 11) Roh SJ, Yoon YG. Analyzing online news media coverage of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2013;61:5-27.
- 12) Korea Audit Bureau of Certification [homepage on the Internet]. 2017 Daily newspaper issuance paid copies [2017.11.22]. Seoul: Korea Audit Bureau of Certification [updated 2018 Sep 30; cited 2019 Nov 3]. Available from: <http://www.kabc.or.kr/about/notices/100000002641?param.page=¶m.category=¶m.keyword>.
- 13) Kwon HC. A study of semantic network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on MERS situation: comparing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news media. *Korean J Health Commun* 2016;11:63-80.
- 14) Jung YM. A study of topics and trends in post-war newspaper articles on Korean-Japanese through keyword network analysi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8;11:1-9.
- 15) Lee SS. A content analysis of journal articles using the language network analysis metho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014;31:49-68.
- 16) Kwon SY, Bae KR. A study on the knowledge structure of cancer survivors based on social network analysis. *J Korean Acad Nurs* 2016;46:50-58.
- 17) Park EJ, Kim YG, Park CS. A comparison of hospice care research topics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using text network analysis. *J Korean Acad Nurs* 2017;47:600-612.
- 18) Freeman LC. Centrality in social networks conceptual clarification. *Social Networks* 1979;1:215-239.
- 19) Park CS, Chung CW. Text network analysis: detecting shared meaning through socio-cognitive networks of policy stakeholders.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2013;19:73-108.
- 20) Cho SY, Kim JM. Network TV news coverage of mental illnes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2010;54:181-204.
- 21) Lee CS, Lee DY, Hwang YS. Report of crime conducted by the mentally ill in Korean newspapers.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1996; 35:1132-1144.
- 22) Lee MS, Ko JA, Oh JH, Shin YS, Park JS. Trend of internet media report for mental health and suicide. *J Korean Assoc Soc Psychiatry* 2009;14:97-104.
- 23) National Union of Journalists [homepage on the Internet]. NUJ guidelines for responsible reporting on mental health, mental illness & death by suicide 2014. London: National Union of Journalists [updated 2014 Nov 6; cited 2018 Dec 10]. Available from: <https://www.nuj.org.uk/documents/nuj-guidelines-for-responsible-reporting-on-mental-health/>.
- 24) Samsung Medical Center. 2016 The Survey of Mental Disorders in Korea.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17.
- 25) National Union of Journalists [homepage on the Internet]. Mental health & suicide guidelines. London: National Union of Journalists [updated 2015 Mar 30; cited 2018 Dec 10]. Available from: <https://www.nuj.org.uk/news/mental-health-and-suicide-reporting-guidelines>.
- 26) Mental Health Foundation [homepage on the Internet]. Mental Health Foundation media guidelines: portrayal of people living with mental illness and mental health issues in Aotearoa. Auckland: Mental Health Foundation of New Zealand [cited 2019 Jan 16]. Available from: <https://www.mentalhealth.org.nz/get-help/media-guidelines>.

■ 부록 1 ■

사용자 사전-지정어(Defined)

성별 및 생애주기	이슈 관련 단어	영어	보건복지 관련 단어	관련 기관
여성	세월호	루크린	정신보건	여성가족부
남성	잠수사	졸라텍스	정신건강	보건복지부
영유아	롯데	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정신질환	의료기관
아동·청소년	성년후견	에스앤에스	정신장애	보건소
청년	임의후견	에이디에이치디	정신병	정신건강의학과
장년	후견인	에이에스엠알	정신질환자	정신병원
노인	피후견인	피씨방	정신장애인	국립서울병원
	금치산자	피티에스디	정신병자	정신건강센터
	한정치산자	커뮤니티	지적장애	정신보건센터
	자기결정권	케어	중증장애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의		지적장애인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관사		중증장애인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유병률		심리부검	트라우마센터
	장기간		정신감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단기간		장기요양보험	치매지원센터
	학교생활		사각지대	에듀힐링센터
	학교폭력		지역사회	위센터
	왕따		사회복지	그룹홈
	일진		사회복지사	
	성추행		사례관리	
	성폭행		사례관리자	
	성폭력		보호관찰	
	성범죄		보호관찰관	
	여성혐오		고독사	
	미투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정신장애 단어				
각성장애	발달장애	신경발달장애	인위성장애	탈억제성 사회적
간헐적	발모광	신경성 식욕부진증	인지장애	유대감 장애
간헐적 폭발장애	배설장애	신경성 폭식증	인터넷게임장애	털뽑기
강박장애	변아웃증후군	신경쇠약	일주기리듬	특정공포증
거식증	베르테르	신경학적	자극제	특정학습장애
경계선 지적 기능	변태성욕장애	신체이형장애	자세떨림	틱장애
경도신경인지장애	병적	신체증상장애	자신감	파괴적
공포증	복장도착장애	심신미약	자존감	파괴적
공황장애	불면장애	아스퍼거	자폐스펙트럼장애	기분조절부전장애
관음장애	불안장애	아편계	적대적 반항장애	파킨슨
광장공포증	비현실감 장애	악몽장애	적응장애	폐쇄성 수면 무호흡
근육긴장이상	사건수면	알츠하이머	전두측두엽	폐쇄성 수면 저호흡
급식장애	사용장애	알코올	전환장애	폭발장애
기능성 신경학적	사이코패스	애도장애	정신병적 장애	폭식장애
증상장애	사정지연	애착장애	정신분열	폭식증
기면증	사회공포증	약물치료	제한적 음식섭취장애	품행장애
기분저하증	산후우울증	양극성장애	조기사정	프라이온병
기분조절부전장애	삽입장애	언어장애	조현병	피부뜯기장애
기억상실	상동증	여성극치감장애	조현양상장애	하지불안
긴장성장애	상동증적 운동장애	외상성 뇌손상	조현정동장애	학습장애
긴장증	선택적	외상성 스트레스	조현형 장애	함구증
낙인효과	선택적 함구증	증후군	좌불안석	항불안제
남성성욕감퇴장애	섬망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주의력결핍 과다행동	항우울제
노출장애	섭식장애	우울장애	장애	해리성 기억상실
도박장애	성격장애	우울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해리성 정체성장애
되새김장애	성기능부전	운동이상	장애	해리장애
루이소체	성별 불쾌감	운동장애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	행동장애
마찰도착장애	성적가학장애	월경전불쾌감장애	증상장애	헌팅틴
말더듬	성적피학장애	유노증	증후군	혈관
말소리장애	소아성애장애	유분증	지속성	협응장애
망상장애	수면각성장애	유창성장애	지속성 복합 애도장애	화병
물품음란장애	수면장애	음식섭취장애	지적발달장애	환각제
반사회성	수면제	의사소통장애	지적장애	회피적
반항장애	수집광	의존증	진정제	흡입제
발기장애	순환성장애	이식증	충동조절 장애	홍분장애
발달성	스트레스장애	이인성 장애	카페인	리플리
발달성 협응장애	스펙트럼	인격장애		
	식욕부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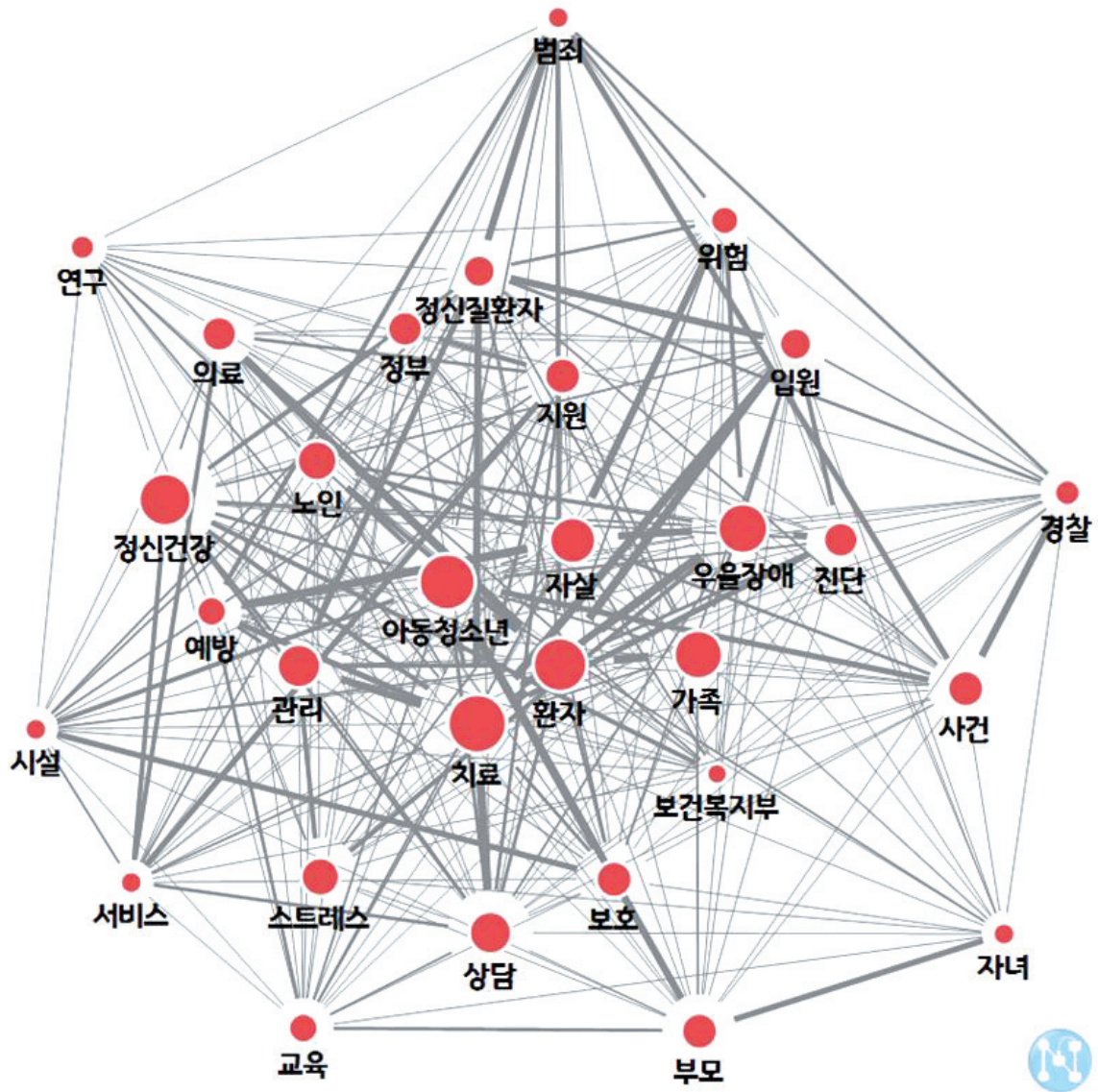
■ 부록 2 ■

2016~2018년 출현빈도 및 중심성 지수(상위 10개 단어)

순위	출현빈도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1	치료(659)	치료(0.860)	치료(0.877)	아동청소년(0.064)
2	환자(486)	아동청소년(0.840)	아동청소년(0.862)	치료(0.063)
3	정신건강(466)	환자(0.820)	환자(0.847)	환자(0.048)
4	사건(436)	정신건강(0.660)	정신건강(0.746)	우울장애(0.028)
5	아동청소년(413)	우울장애(0.630)	우울장애(0.730)	정신건강(0.028)
6	가족(395)	가족(0.600)	가족(0.714)	가족(0.026)
7	우울장애(363)	자살(0.590)	자살(0.709)	자살(0.022)
8	진단(346)	관리(0.540)	관리(0.685)	상담(0.015)
9	연구(323)	상담(0.530)	상담(0.680)	스트레스(0.015)
10	관리(322)	노인(0.490)	노인(0.662)	부모(0.014)
11	위험(322)	스트레스(0.480)	스트레스(0.658)	사건(0.014)
12	정부(296)	보호(0.470)	보호(0.654)	관리(0.013)
13	경찰(291)	부모(0.470)	부모(0.654)	노인(0.013)
14	스트레스(288)	사건(0.470)	사건(0.654)	지원(0.012)
15	지원(277)	지원(0.470)	지원(0.654)	진단(0.011)
16	신체(275)	의료(0.460)	의료(0.649)	입원(0.010)
17	입원(272)	정부(0.460)	정부(0.649)	의료(0.010)
18	상담(270)	진단(0.460)	진단(0.649)	정신질환자(0.009)
19	도움(266)	입원(0.450)	입원(0.645)	예방(0.009)
20	살인(266)	정신질환자(0.450)	정신질환자(0.645)	연구(0.009)

■ 부록 3 ■

정신질환 관련 기사 네트워크(상위 30위 단어)



■ 부록 4 ■

정신질환 관련 언론보도의 하위 주제 그룹

그룹명	단 어
G1 우울 · 불안과 자살(n=7)	불안, 상담, 스트레스, 우울, 우울장애, 자살, 직장
G2 트라우마(n=12)	걱정, 고통, 기록, 기억, 대학, 사망, 상처, 소리, 이름, 준비, 충격, 호소
G3 정신장애인 인권(n=5)	강제, 인권, 입원, 정신질환자, 조현병
G4 중독(n=9)	반응, 복용, 성인, 약화, 약물, 인지, 정상, 중독, 질병
G5 정신건강복지법(n=7)	규정, 단체, 법원, 신청, 요구, 위원회, 차별
G6 노인 정신건강(n=8)	노인, 방문, 보건복지부, 보험, 부담, 의료, 전문의, 진료
G7 아동청소년 정신질환(n=9)	가족, 관리, 아동청소년, 예방, 위험, 정신건강, 진단, 치료, 환자
G8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n=15)	강화, 기관, 마련, 목소리, 보호, 복지, 서비스, 시설, 안전, 정부, 정책, 제도, 지원, 평가, 확대
G9 정신질환자 사건(n=10)	경찰, 범죄, 범행, 분노, 사건, 살인, 수사, 폭력, 피해, 피해자
G1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n=19)	가정, 관심, 교육, 능력, 도움, 부모, 부족, 신체, 어머니, 역할, 연구, 운동, 인식, 자녀, 집중, 친구, 프로그램, 학교, 환경